

백제정원을 주제로 한 리조트 외부 공간 계획

김연금* · 김해경* · 김영모** · 진양교***

*조경작업소 울 · **한국전통문화학교 조경학과 · ***(주) CA 조경기술사사무소

Outdoor Landscape Design Proposal for a Resort using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as a Theme

Kim, Yun-Geum* · Kim, Hai-Gyoung* · Kim, Young-Mo** · Chin, Yang-Kyo***

*Wul Landscape Architecture Office

**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A Landscape Design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one of the open spaces in the Lotte Resort in the Baekje Historical Reappearance Complex, which is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specific areas in the Baekje cultural area.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has historic value, and its excellent garden style influenced the ancient Japanese gardens.

This study dealt with three issues: (1) The context in which Lotte Buyeo Resort accepted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particularly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such; (2) The original form of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and (3) How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open space of the resort.

Representation is accomplished in two ways: using the structure of the original garden and in the borrowing of elements. For representation using the structure of the original garden, Imrugak was used as the main entrance space, and Wolsunjung was represented from the Ganbuklee remains. In the rear garden are wave watercourses and other garden facilities of the Wanggungri site in Iksan. Borrowing of elements, on the other hand, was accomplished in the plant plan and detailed development. In addition, mountaintops (three mountains and five mountain summits), a clean stream between mountains, and a pine forest are visualized in the garden. This is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of the Taoist hermit world that appeared in the Baekje Gilt Bronze Incense Burner and Landscape patter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e Baekje Traditional Garden is a fresh trail because there has been no previous research concerning it. Second, while past research concerning traditional spaces focused on the results of represent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This means that this research work tried to extend the study concerning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spaces from the conceptual to the practical approach.

This study, however, also has its limitations. The authenticity of the representation suggested in this study may be questioned later because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serve the original Baekje Traditional Garden. In addition, this study should seek a balance between authenticity on one hand and amusement and diversity of experience on the other, because the site is a resort.

Key Words: Traditional Garden, Representation, Experience, Commerciality, Amusement

Corresponding author: Yun-Geum Kim, Wul Landscape Architecture Office, Seoul 100-828, Korea. Tel.: +82-2-2254-0504 E-mail: geumii@empas.co.kr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롯데 부여리조트의 외부공간 중 백제 테마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리조트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으며, 이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 중의 하나이다. 백제정원은 역사적으로 유구할 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양식에서도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백제정원의 재현 방식을 공간적으로 구현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백제정원을 롯데 부여리조트에 조성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백제정원의 공간적 구현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백제 정원의 조경사적 의미와 함께 현재까지 문헌연구와 발굴을 통해 밝혀진 백제 정원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셋째, 리조트 외부공간에서 백제정원 재현의 공간적 실현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에서 재현은 구조 적용과 구성요소 차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구조 적용에서는 임류각 공간을 주 진입공간으로 하여 관북리 백제 유적을 재현한 월선정 공간을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이 두 공간을 통해서는 건축과 정원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후반에는 후원 성격을 지닌 익산 왕궁리 정원의 곡수로와 석조원, 비폭원을 재현하였다. 구성요소 차용은 식재계획과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 계획에서 이루어졌다. 이외 정원주변으로는 금동대향로와 산수문전에서 표현되는 대표적 경관인 신선계의 모습과 삼산오봉(三山五峰)형 봉우리, 산 사이 맑은 시냇물, 소나무 숲(松林) 경관을 형상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백제정원이라는 주제 자체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백제정원에 대한 선행연구와 실제적인 공간에 구현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백제시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증을 토대로 백제정원을 개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계획적·설계적 차원에서 적용·재현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통의 적용이나 재현을 다루는 기존 연구가 사례 중심으로 분석과 평가에 치중해왔던 것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계는 백제정원의 사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현재 관련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현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재현과 계승의 화두는 어느 시점에서의 완결성보다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도가 요구되는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발굴된 유적을 그 자리에 ‘원형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의 외부공간에 ‘재현’하다 보니 그 자체로 체험의 다양성과 완결성까지 부여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제어: 전통정원, 재현, 체험, 상업성, 위락성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롯데 부여리조트의 외부 공간 중 백제 테마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리조트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초기 롯데 부여리조트의 전체 기본계획을 건축가가 수립하다보니, 조경과 경관에 대한 설계 아이디어와 내용이 부족했다. 더욱이 건조물과 조형물 중심의 백제문화단지가 조경과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주)롯데자산개발은 백제조경의 적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2009년 리조트 조경기본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백제조경에 관한 학술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¹⁾, 백제조경의 역사와 양식, 이를 기초로 하는 조경계획 가이드라인 작성이 주 내용이 된다. 롯데 부여리조트 조경기본계획에서는 적극적

으로 이를 수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에는 불거리와 체험요소라는 측면에서 백제테마정원을 도입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실천적 매체가 되는 정원은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개인적 영역이었으나, 근래에는 자연을 이용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 고유문화 표현으로서의 가치, 이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이 부각되면서 주거공간을 넘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위락 공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s)은 이탈리아 정원과 일본 전통정원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헌팅턴(Huntington) 정원에서는 중국·일본·영국의 전통정원을 조성하여 관광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로서는 경주 밀레니엄 파크를 들 수 있는데, 신라시대 정원을 주제로 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때 전통정원은 주제의 명확성과 높은 대중적 인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백제정원의 공간적 구현에 있어서는 재현의 방식을 따랐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7년조(391년)에 이미

궁내에 못과 가산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백제정원은 고구려나 신라보다 역사가 깊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양식에서도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제정원의 원형에 대한 탐구나 이를 주제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한 한 사례가 많지 않다²⁾. 이에 본 연구는 백제정원을 다루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리조트의 외부공간이 대상지인 만큼 전통정원의 원형적 재현의 문제와 더불어 위락적인 요소, 즉 '방문객들에게 체험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 또한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제정원 재현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전통공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유사 연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정원을 롯데 부여리조트에 조성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백제정원의 공간적 구현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백제정원의 조경사적 의미와 함께 현재까지 문헌연구와 발굴을 통해 밝혀진 백제정원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셋째, 리조트 외부공간이라는 특성 속에서 백제정원 재현의 공간적 실현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2. 대상지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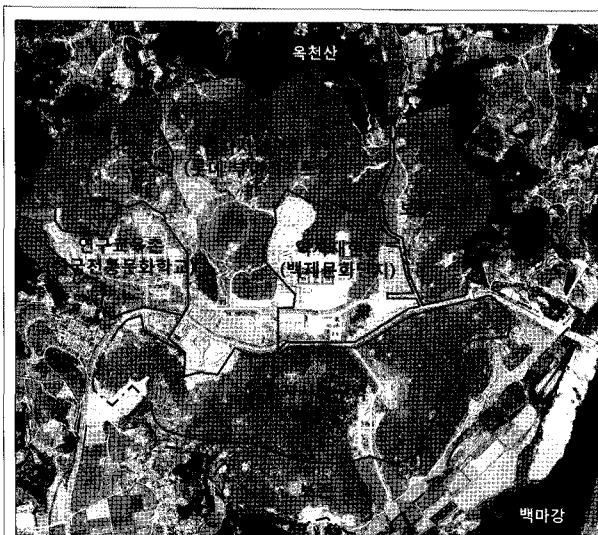
롯데 부여리조트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의 하나로 1993년 시작되었다. 1993년 공주와 연계된 종합휴양촌 관광농원 조성과 백제역사재현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 착공하여 2001년 완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 백제 사료에 대한 고증 부족, 부실 시공,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부재, 민자 유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완공시기가 다시 2005년으로 연기되었다가, 2008년 12월 가장 큰 문제였던 민자 유치가 (주)롯데의 투자로 해결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다. 대신 일부 시설은 숙박시설인 롯데 부여리조트, 테마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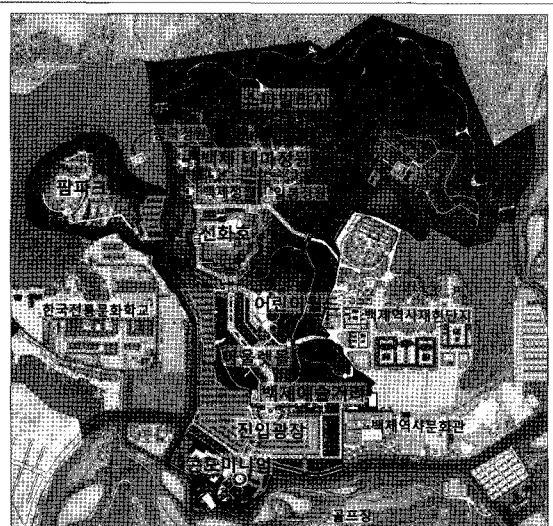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총면적은 329만²m(약 100만 평)에 달하며, 크게 백제문화단지과 연구교육촌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지가 입지한 민자사업 구역으로 구성된다. 148만²m 규모의 백제문화단지에는 왕궁과 능사(陵寺), 개국촌, 민속촌, 군사통신촌, 장제 묘지촌, 백제역사문화관 등 모두 153동의 고건축물이 이미 들어섰고, 16만²m의 연구교육촌에는 한국전통문화학교(2000년 3월 개교)가 입주해 있다. (주)롯데가 투자하는 165만²m의 민자사업 구역에는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롯데 부여리조트가 포함된다. 그리고 다시 롯데 부여리조트는 백제예술거리, 아울렛 몰, 어린이월드, 선화호와 맛거리, 팜파크, 스파빌리지로 구성된다. 콘도미니엄은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에 맞춰 2010년 9월에 개장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백제테마정원에는 백제정원 외 중국과 일본의 전통정원도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백제정원의 양식적 특성과 이의 재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외했다.

II. 본론

1. 백제정원 도입의 의의와 방식



a: 백제역사재현단지 권역



b: 롯데 부여리조트와 백제테마정원

그림 1. 대상지

1) 백제정원 도입의 조경사적 의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백제시대의 정원은 역사가 매우 깊고, 고대 일본정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졌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7년(391년)의 '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라는 기록은 '궁실을 중수하고,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이상한 짐승과 화초를 길렀다'라는 내용으로 '천지조산(穿池造山)' 양식과 '기화이초(奇花異草)'를 길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2년(500년) 봄에는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임류각을 궁성 동쪽에 세웠고(중략) 못을 파고 진기한 새들을 기르게 하므로(하략)'라는 내용이다. 또한 그해 5월의 기록에는 '王與左右宴臨流閣 終夜極歡'이 있는데, 이는 '왕이 좌우 신하들과 더불어 임류각에서 잔치하면서 밤새 즐겼다'이다. 이를 통해 임류각 주변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궁궐의 연회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백제정원의 공간구성과 요소, 정원을 향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정원에 대한 연구는 신라 및 조선시대의 정원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정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형 방식과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고, 부족한 조형언어를 근거로 재현을 시도할 경우 왜곡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궁남지³⁾의 경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5년(634년)에는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들었으며, 언덕 가장자리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는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에 비기었다'(부여군, 2008)라고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1967년, 이전부터 있던 저습지를 파고 포룡정과 다리를 놓는 형태로 임시 복원하였으나, 원래 기록상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라는 평을 받는다. 삼국시대 신선사상의 영향으로 조성된 못의 가산은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선들의 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못 안의 중도와 연결되는 다리가 없었을 것으로 유추되어 궁남지의 다리는 잘못 복원된 것(전통조경연구소, 2009)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익산 왕궁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정원의 양식을 일부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198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22차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전체 약 120,000m² 중 2/3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b)⁴⁾. 출토된 총 3,000여점의 고고 유물 자료 중 거대한 궁궐지와 정원시설, 왕과 궁인이 사용했던 화장실 유구, 금은 세공품은 왕실생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어 백제의 이궁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b). 최근 발굴 성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정원요소인데, 2008년 발굴조사에서 궁성의 후원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발견되었다. 특히 석

조시설, 집수 및 배수로, 정원 조망을 위한 정자, 수경요소로 경관석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a). 곡수로의 경우 기존 통일신라시대의 포석정과 안암지 입수부, 조선시대 창경궁 후원의 옥류천에만 있었다(신상섭, 1997)고 알려져 왔으나, 이곳에서의 발굴로 백제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더불어 전통조경연구소(2009)는 백제시대를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과 조경의 전개양상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과 발굴 내용, 연구 성과를 근간으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백제정원의 원형을 탐구하고, 공간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2) 백제정원의 도입 방식과 내용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백제정원을 재현의 방식으로 도입했다. 김한배(1997)와 소현수 등(2006)은 전통재현의 방법을, 전통경관의 구성요소 차용·전통공간의 구조적용·전통공간 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가치관을 전개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중 본 연구에서는 전통공간의 구조적용과 구성요소 차용을 따랐다. 먼저 구조적용에서는 궁궐의 건물과 정원의 공간적 관계, 이궁 정원의 공간 구성을 적용하였다⁵⁾. 선행연구에서는 궁궐 정원으로 공산성 유적인 임류각과 관북리 백제 유적, 이궁 정원으로는 익산 왕궁리 유적과 궁남지로 유형화(전통조경연구소, 2009)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따랐다.

임류각은 관련 문헌과 1980년도에 진행된 발굴조사 내용을 근거로 형태를 유추했다. 공산성 광복루 광장의 서남사면에서 발굴된 유구를 살펴보면 초석의 배열이 6×7열이며, 남면 초석 간격은 2.1m, 동면 초석 간격은 1.8m로 전체 건물의 형태는 정방형이다. 임류각 전면의 방지는 유구 발굴 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건물과 조화되는 정형식 형태이다(주남철, 2009).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의 경우 1982년에서 2005년까지의 11차에 걸친 발굴조사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원립건축과 방지로 구성된다. 이때, 방지는 입수구와 집수정이 갖추어진 정연한 북면 6.3m, 동면 6.25m의 정방형으로 연꽃이 식재(정재훈, 1996)⁶⁾되었으며, 방지의 호안석 석축을 따라 1자의 회랑형 원립건축이 면한 것으로 유추된다.

왕궁리 발굴 중간 보고 VI(2009)에 따르면 왕궁리는 전체적으로 자연지형을 활용한 4단으로 구성되며, 단계적 위계에 따라 각단의 공간 성격과 역할이 다르다. 전면은 공적 공간으로 진입과 공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후면은 사적 공간으로 휴식을 위한 공간, 즉 정원으로 밝혀졌다. 또, 정원은 곡수로, 비폭원, 석조원, 정원석으로 구성된다. 구불구불한 수로는 백제 정원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물을 흘러 보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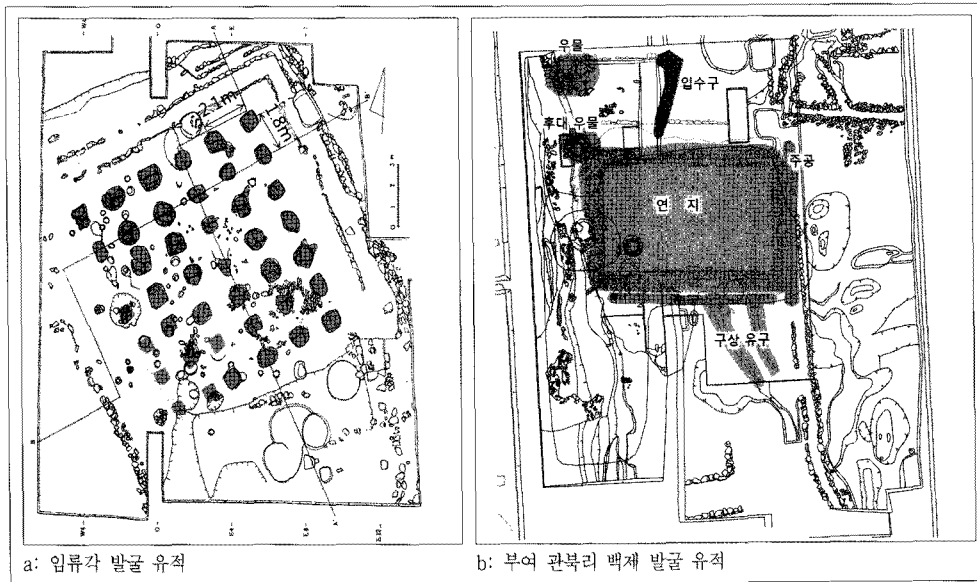


그림 2. 임류각과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발굴 조사 내용

자료: a: 공주사범대학 백제문화연구소, 1982: 28

b: 부여군, 2005: 35

기능 이외에 물을 저장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지녔으며, 일본 정원의 사행수로(아리미즈: 瀝り水)와는 다르게 수로 바닥에 돌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로 중간 중간은 바깥쪽으로 둥글게 돌출된 형태이며, 부위와 곡수로 바닥면은 오철 형태로 물이 일정한 높이까지 차서 넘쳐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수로 중간은 W2.5m×L48.4m 크기의 방형 석수조가 있어 물을 저장하고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집수시설(集水施設) 역할과 석수조와의 지형낙차를 이용한 소형의 비폭(飛瀑)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폭 주변으로는 경관적 효과를 위해 괴석이 배치되었으며, 인근에는 원림건축이 있어 낙수시설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b).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곡수로와 비폭원, 석조원, 원림건축 간의 공간적

관계와 요소를 차용했다.

궁남지는 삼국사기 무왕 35년(634년)의 기록 내용을 보면 방형의 못 주변에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도가에서 말하는 삼신산이 있었다. 삼국사기 의자왕 15년(655년)의 기록에는 '修太子宮 極修麗 立望海亭於王宮南'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자궁(太子宮)을 고치고, 망해정(望海亭)을 건립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무왕 때 조성한 못을 바다로 여기고, 이 못을 바라보는 정자의 이름을 망해정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주남철,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못과 신선도,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망해정과 관계성을 도입하였다.

구성요소의 차용에는 백제경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종 선정, 신선계의 연출, 건축물, 정원요소 도입이 해당된다. 먼저 발굴



그림 3. 익산 왕궁리 정원유적 발굴 조사 내용

자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a: 18

조사와 문헌조사를 근거로 수종을 선정했다. 삼국시대의 기록⁷⁾과 궁남지 발굴 결과⁸⁾를 보면 유실수와 참나무 류 등 다양한 식물이 등장하나, 이 중 조경수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란, 철쭉, 소나무, 배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매화, 연꽃 등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문헌에 근거하여 기화이초원을 도입했다. 삼국사기 백제 진사왕 7년(391년) 기록과 백제 무왕 37년(636년) 3월의 기록인 '王率左右臣寮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奇巖怪石 錯立 間以奇花異草'는 '왕이 신하들과 사비하(泗泚河: 금강) 북포에서 연유할 때 북포의 양 언덕에는 기암괴석이 착립(錯立)한데다가 간간이 기화이초가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로 '기화이초'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여기서 '기화이초'란 '다양하고 화려한 초화류'를 뜻하나, 명확한 수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양하고 화려한 기화이초원을 표현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백두옹(白頭翁: 할미꽃)을 비롯해 백제시대 이후 문집과 역사서에 등장하는 초화류도 추가하였다. 또한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사강목」 등 역사서와 「동국이상국집」, 「파한집」, 「보한집」, 「고려가요」 등 과거 문집에 등장하는 식물 중 조경용으로 식재 가능한 수종을 추가하여 수종 선택의 폭을 넓혔다(표 1 참조). 더불어 문헌에 표현된 수목의 생육 환경과 양식화된 배식기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못 주변의 버드나무 식재, 연못 안의 연꽃, 기암괴석 주변의 기화이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신선계의 연출을 위해서는 백제시대 신선사상이 표상된 유물인 '금동대향로'와 '산수문전'에 나타난 지당과 신선도, 삼산오봉(三山五峰)형 봉우리, 산 사이 맑은 시냇물, 소나무 숲(松林) 경관으로 형상화하였다.

정원에 도입되는 건축물의 경우, 발굴 자료의 주초석 간격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 자료만으로 불충분한 외형·부재의 규격·재료·구조의 결합 등은 지금까지의 고증 자료에 따라 백제 건축 양식으로 일컬어지는 연화문 기와와 치미, 하양식 구조⁹⁾ 그리고 백제 단청을 따랐다. 정원 구조 요소의 차용은 수경요소가 대표적이다. 정적인 형태와 동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정적인 물에 해당하는 방지는 관북리 백제 유적과 임류각에서 차용했으며, 계류와 같은 동적인 물은 익산 왕궁리 유적의 곡수로, 비폭원, 석수조를 차용했다. 방지는 네모난 형태뿐만 아니라 입수구, 집수정과 같은 수리적 구조물, 발굴로 밝혀진 호안 석축의 형태 등도 도입했다.

2. 기본 계획안

롯데 부여리조트 내 백제테마정원은 옥천산(155m)을 등지

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북측으로 지형이 높고 경사가 가파르며, 남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백제테마정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87,450m²(26,500평)이고, 이중 백제정원은 31,800m²(9,630평)이다. 기본 계획안 수립에 있어서의 주요점은 재현의 대상이 되는 임류각과 방지,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의 건축물과 방지, 익산 왕궁리의 후원 그리고 궁남지가 본래의 입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정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다.

진입 전면부에는 임류각을 두어 주 진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원림 건축과 조화된 정형적 정원 양식을 체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인접하여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을 재현한 월선정 공간을 두었다. 이 두 공간의 후면 경사지에는 주변 산과 연결되는 경사지에 조성된 후원 성격의 익산 왕궁리 정원을 재현하였다. 상부에서 시작된 수로를 익산 왕궁리 정원의 특징적 정원 요소인 곡수로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석조원과 비폭원으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다시 수로의 물은 궁남지를 모방한 신선원으로 흘러 보냈다. 또한 백제요라는 명칭의 도자체험장을 두어, 도자기 관련 세미나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임류각과 월선정의 연지에는 기록에 따라 연꽃을 식재하고, 주변으로 기화이초원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화려한 꽃들이 피는 경관을 연출하였다. 시설물에서는 백제정원에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 가산과 축석, 지당, 점점물 등을 도입하였다. 경사가 급한 계류원 후면에는 '부소암'¹⁰⁾에서 유래한 소나무 숲(전통조경연구소, 2009)을 조성하여 정원의 배경목 역할을 하고 위요감을 갖도록 하였다.

정원에 도입된 건축물과 정원의 명칭은 재현되는 공간의 명칭을 따르거나 계획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먼저 '임류각', '망해정'은 재현된 건축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백제정', '백제요', '사비정'은 백제를 직설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와 건물 기능을 조합한 것이다. 문헌과 발굴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외형과 기능은 알 수 있으나, 명칭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획 의도와 부합하는 의미를 설정하여 명칭을 정했는데, '월선정'이 이에 해당한다. 각 정원 요소의 명칭은 건축물과 같이 재현한 공간의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여 '곡수로원', '비폭원', '석조원'으로 명명하거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궁남지를 재현한 '신선원'처럼 정원양식을 직접적으로 도입하여 명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경관적인 계획과 함께 문화유산의 다차원적 체험과 방문객의 흥미를 부가시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표 1. 수종 선정

출처	선정된 기화이초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집」, 「파한집」, 「보한집」, 「고려가요」, 「양화소록」	백두옹(白頭翁: 할미꽃), 계관화(鷄冠花: 맨드라미), 석죽(石竹: 패랭이꽃), 다매(茶梅: 동백), 작약(芍藥), 석창포(石菖蒲), 매괴화(玫瑰花: 장미), 서대초(書帶草: 백문동), 서향(瑞香), 금전화(金錢花: 금전화), 옥매(玉梅), 지당(地棠: 죽단화), 황촉규(黃蜀葵: 노랑집시꽃)

기법을 적용한 비물리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백제 왕가의 초대'를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설정하여 왕이 누렸던 화려한 일상과 문화를 방문객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리 라인의 기본 골격은 '들어서다→연회에 초대받다→백제문화를 감상하다→백제문화를 체험하다→백제정원을 소요하다→백제경관을 바라보다→신선원에서 신선계를 상상하

다'가 된다. 그리고 건축물에서는 스토리 라인에 부응하면서도 재현 대상이 된 건축물의 본래적 성격이 반영된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일례로 본래의 임류각이 왕의 연회공간으로 쓰였던 만큼, 이를 재현한 공간에서는 백제음악과 음식을 곁들인 연회 공연과 함께 왕의 수라상 시식과 공연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백제문화의 감상과 체험은 백제왕족 침소 체험,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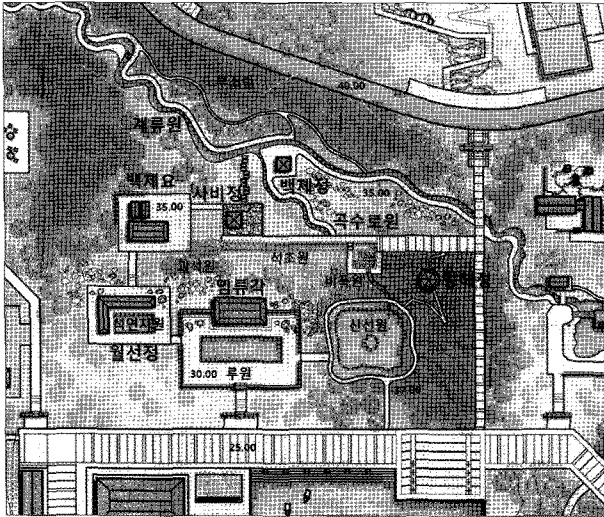


그림 4. 백제테마정원 기본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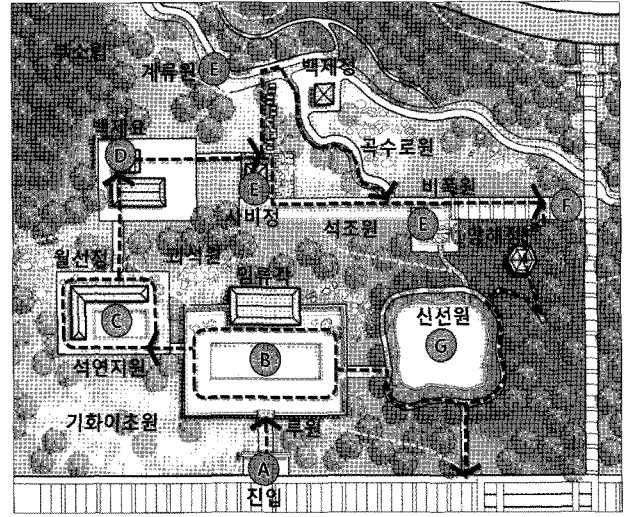


그림 7. 백제정원의 체험 동선과 스토리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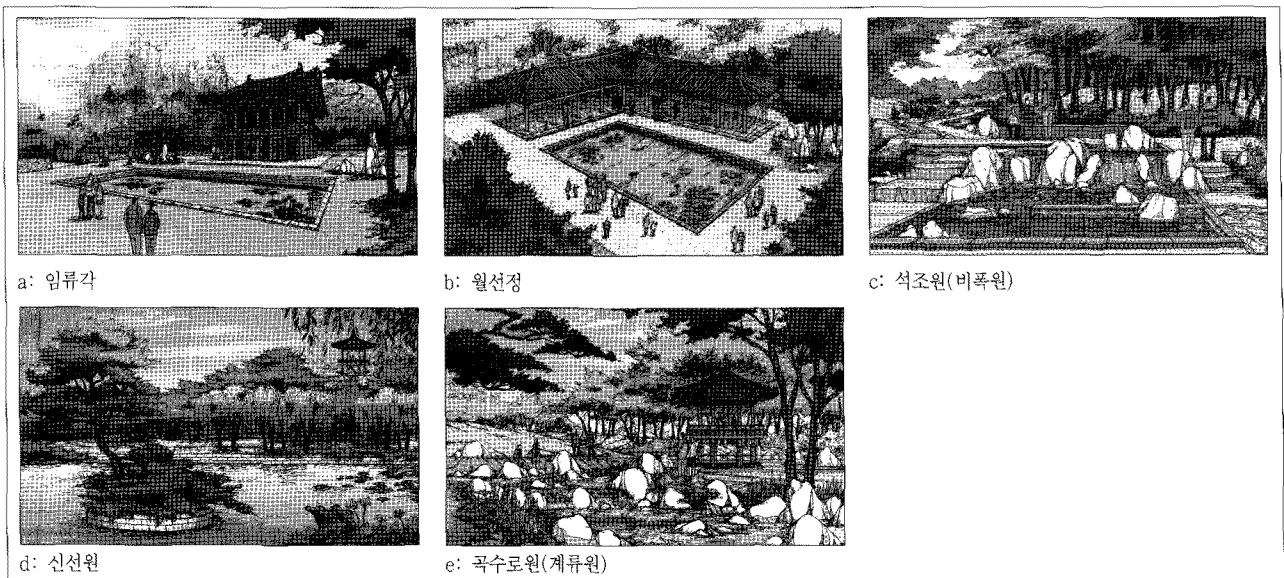


그림 5. 백제정원 스케치

(A)	(B)	(C)	(D)	(E)	(F)	(G)
들어서다	연회에 초대받다	백제문화를 감상하다	백제문화를 체험하다	백제정원을 소요하다	백제경관을 바라보다	신선원에서 신선계를 상상하다

그림 6. 백제정원 프로그램의 스토리 라인

왕족 의상 입어보기, 백제말로 역할 놀이, 백제 오락기 체험과 백제 기악듣기, 백제 왕족의 생활모습에 대한 해설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백제정원을 주제로 한 리조트 외부공간 계획에 관한 것으로, 문헌연구와 발굴조사에 의해 현재까지 밝혀진 백제 조경의 특징을 재현하였다. 재현은 구조적용과 구성요소 차용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구조적용에서는 궁궐의 건물과 정원의 공간적 관계, 이궁 정원의 공간 구성을 적용하였다. 궁궐 정원에는 공산성 유적인 임류각과 관북리 백제 유적이, 이궁 정원에는 익산 왕궁리 유적과 공남지가 해당된다. 후면부의 경사지를 활용하여 익산 왕궁리 정원의 곡수로, 석조원, 비폭원을 재현하였다. 이러한 물리적·경관적 계획과 함께 '백제왕가의 초대'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구성요소의 차용은 백제경관을 표현하기 위한 식재계획과 신선계의 연출, 정원요소의 도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식재계획의 전제가 되는 수종에는 삼국시대 기록과 유적 발굴 결과를 토대로 왕버들, 느릅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복숭아나무, 소나무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백제시대 식재의 전형으로 해석되는 백제 진사왕 7년(391년) 기록과 백제 무왕 37년(636년) 3월의 기록에 등장하는 '奇花異草'에 주목하여 관목과 초화류의 '기화이초원'을 도입하였다. 대상지내 신선계의 연출을 위해서는 형상적 모티브를 백제시대 신선사상이 표상된 유물인 '금동 대향로'와 '산수문전'에서 추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선계의 모습을 지당과 신선도, 삼산오봉형 봉우리, 산 사이 맑은 시냇물, 소나무 숲 경관으로 형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제조경의 수경요소를 정적 수경과 동적 수경으로 구분하고, 정적인 물에 해당하는 방지는 관북리 백제 유적과 임류각에서, 계류 등의 동적인 물은 익산 왕궁리 유적의 곡수로와 비폭원, 석수조를 차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백제정원을 주제로 한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백제정원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를 실제적인 공간에 구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백제시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증을 토대로 백제정원을 개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계획적·설계적 차원에서 적용·재현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통의 적용이나 재현을 다루는 기존 연구가 사례 중심으로 분석과 평가에 치중해왔던 것과 차별성을 가지며, 재현되는 공간의 성격과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별적 요소의 적용에 머물렀던 전통정원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백제정원의 사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현재 관련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현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재현과 계승의 화두는 어느 시점에서의 완결성보다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도가 요구되는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굴된 유적을 그 자리에 '원형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의 외부공간에 '재현'하다 보니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체험의 다양성과 완결성까지 부여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테마정원으로서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다 보니 자칫하면 원형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고증에 기초한 원형의 복원보다도 원형의 재현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백제정원의 양식과 요소를 가능한 한 모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백제조경의 계승과 재현에 관한 후속 연구 및 실천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 주 1. 이 학술용역은 한국전통문화학회의 전통조경연구소에서 진행하였고, 내용은 백제사 총론, 백제시대 조경의 전개양상, 백제조경의 중국·일본과의 영향과 관련성, 백제조경의 유형과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 2. 2009년 부여 공남지에서 백제정원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있었으나, 일본정원의 평성궁 동원과 중국정원의 소주 망사원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한 수준이었다.
- 주 3. 공남지는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원림으로 14년 동안 진행된 8번의 발굴조사에서 연못 호안과 수로, 목조 집수조, 목간(木簡), 토기, 기와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1967년 임시적으로 복원된 것이다.
- 주 4. 백제시대의 성벽, 석축, 대형 화장실, 정원, 와적기단(瓦積基壇) 건물지와 공방폐기지(工房廢棄址) 등 다양한 궁성관련 유구와 왕궁리 5층석탑의 금당지(禁堂址), 강당지(講堂址) 등 통일신라시대 사찰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왕궁사(王宮寺)·대관관사(大官官寺) 명문와, 수부(首府)명 인장와, 연화문 와당, 각종 도가지, 금제 영락(璽珞), 유리구슬, 뒤처리용 나무막대, 각종 토기 및 중국제 청자편 등의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 주 5. 일반적으로 궁궐에서 정궁(正宮)은 정치·행정·군사의 중심 공간이며, 이궁(離宮)은 왕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공간이다. 2009년 전통조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관북리 백제 유적과 공산성 유적인 임류각을 정궁 정원으로 보았고, 익산 왕궁리 유적과 공남지를 이궁원으로 보았다. 더불어 건물과의 관계성에 따라 건물과 연계된 정형적 공간의 중심영역으로서 '정원'과 자연적 공간의 후원영역인 '원림'으로 구분하였다.
- 주 6.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조사 결과, 백제 왕궁의 연못이 발굴되었다. 못 속에서는 백제시대 토기편·기와편, 벼루조각, 목간, 등잔 등이 출토되었고, 가장 깊은 못의 바닥에서는 연꽃잎과 줄기가 부식된 채로 발견되어 연꽃을 심었던 연못임이 확인되었다.
- 주 7. 삼국사기에는 소나무(松), 대나무(竹), 밤나무(栗), 회화나무·느티나무(槐), 버드나무(楊), 뽕나무(桑), 차(茶), 매화(梅花), 자도나무(李), 느릅나무(榆), 옷나무(漆), 황칠나무(黃漆), 회양목(黃楊) 등이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박달나무(檀), 대나무(竹), 모란(牡丹), 소나무(松), 회화나무·느티나무(槐), 철쭉(躑躅), 앵두나무(櫻), 연꽃(蓮), 배나무(梨), 산수유(山茶葉), 마(薯蕷), 매화(梅花), 뽕나무

(桑), 버드나무(楊), 밤나무(栗), 복숭아(桃), 잣나무(栝), 향나무(香)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주 8. 소나무, 상수리나무류, 느티나무, 비자나무, 뽕나무, 오리나무, 벗나무, 졸참나무,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앵두나무, 가래나무, 모과나무, 박과 그 외 잣송이와 솔방울, 호두·살구 씨 등이 해당된다.
- 주 9. 하양식 구조란 하양(下陽)이라는 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도리 바로 밑에 있는 부재가 서까래와 같은 경사를 가지고,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지렛대 형식으로 받고 있는 공포를 말한다.
- 주 10. 부소산의 부소(扶蘇)는 '부소암'에서 유래하며, 이는 소나무 숲이라는 의미로 사비백제시대 가장 전형적인 식재경관이었다.

인용문헌

1. 공주사범대학(1982) 공주 공산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9) 궁남지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청.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a) 익산 왕궁리유적. 서울: 주류성.
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b) 왕궁리 발굴 중간 보고 VI. 대전: 파피루스.
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0a) 21차 익산 왕궁리유적, 2차 제석사지 발굴조사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
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0b) 익산 왕궁리유적(제22차 조사) 보고서.
7. 김한배(1997) 한국조경의 전통과 설계적 상상력, 환경과 조경. 통권 110호: 98-103.
8. 부여군(2005)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9. 부여군(2008) 부여 서동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 계획 보고서.
10.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무왕 35년.
11.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무왕 37년.
12.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진사왕 7년.
13.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의자왕 15년.
14.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동성왕 22년 봄.
15.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동성왕 22년 5월.
16. 소현수, 김혜경, 최기수(2006) 주거단지 외부공간에서의 전통 재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2): 86-100.
17. 신상섭(1997) 우리나라의 유상곡수연 유구(곡수거)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5(1): 133-141.
18. 전통조경연구소(2009) 롯데 부여리조트 백제조경 가이드라인 설정 보고서.
19. 정재훈(1996) 한국전통의 원. 서울: 도서출판 조경.
20.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1.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 조경 문화사. 서울: 대가.

원 고 점 수 일: 2011년 1월 4일
 심 사 일: 2011년 2월 25일(1차)
 2011년 3월 9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3월 21일
 4인익명 심사필